

3밴드 LTE-A 스마트폰은 세계 최초 맞지?

2015년 스마트폰 대전 시작됐다

삼성, 갤럭시노트4 S-LTE로 '선공' 중저가 시장 겨냥 A시리즈도 선행 LG도 이달말 G플렉스2 출시 '맞불'

2015년 첫 스마트폰 대전이 시작된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달아 신규 제품을 국내 시장에 내놓으며 경쟁에 불을 지핀다. 특히 연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4배 빠른 LTE '3밴드 LTE-A' 지원 스마트폰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관심이 더 높아진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3밴드 LTE-A 지원 단말기 경쟁

이동통신사들의 '세계 최초' 논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계 최초' 3밴드 LTE-A 지원 스마트폰이 21일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4 S-LTE'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내놔다. 갤럭시노트4 S-LTE는 삼성전자의 주력(플래그십) 프리미엄 모델로, 기존 갤럭시노트4의 장점인 S펜과 강력한 카메라 성능을 동일하게 구현한 제품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이다. 3밴드 LTE-A는 1개의 20MHz 광대역 주파수와 2개의 10MHz 주파수를 주파수묶음(CA)기술로 묶어 이론상 최대 3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 300Mbps는 700MB 용량의 영화 1편을 약 19초, 4MB 용량의 MP3 음악 파일 10개를 약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갤럭시노트4 S-LTE의 출고가는 95만7000원

이다.

LG전자도 이달 말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G플렉스2'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22일부터 제품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또 같은 날 LG전자는 국내에서 제품을 처음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행사를 마련했다. 1월 초 미국에서 열린 가전전시회(CES)에서 처음 베일을 벗은 'G플렉스2'는 곡면 디스플레이를 갖춘 것이 특징. 무엇보다 전면과 후면에 각기 다른 값의 곡률을 적용해 손에 감기는 그림감과 영상 시청 시 물입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중저가 시장을 잡아라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중저가 스마트폰도 이달아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제품 시장 동시 공략이라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인 갤럭시 A 시리즈가 드디어 국내에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5'를 22일, '갤럭시A7'를 1월말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갤럭시A5는 5인치 고화질(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갤럭시A7은 5.5인치 풀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달았다. 특히 후면과 테두리까지 일체형 메탈 소재를 사용해 감각적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모두 갖췄다. 출고가는 갤럭시A5가 48만4000원, 갤럭시A7이 58만3000원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 왔다. 지난해 내놓은 '아카폰'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왔고, 향후에도 다양한 중저가 라인업을 국내에 선보일 방침이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국내 제조사들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을 이달아 내놓으면서 2015년 본격적인 시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S-LTE'·'갤럭시A5' (위쪽 왼쪽부터)와 LG전자의 'G플렉스2' (아래).

양형모의 아이 러브 스타이지 | 연극 '리타'

리타의 성장기, 배우 공효진의 성장기

'공블리' 공효진, 첫 연극무대 도전 화제 속사포 같은 대사...TV 속 모습 그대로 변화하는 캐릭터 '일관된 말투' 속에 터

'리타 길들이기(원제 Educating Rita)'로 익숙한 연극 '리타'. 왕년 최화정의 명연기를 잇을 수 없는 작품이다. 최화정은 1991년 한국 초연 '리타'였고, 2008년에도 '리타'로 무대에 섰다. 워낙 연기를 잘 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리타'는 정말 스किन치처럼 그녀에게 딱 달라붙었다.

최화정으로부터 '리타'를 물려받은 두 명의 여배우는 공효진과 강혜정이다. 강혜정은 가끔씩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볼 수 있었지만 공효진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화제가 됐다. '공블리'를 몇 미터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리타'는 무식하고 천박한 20대 여성의 지적 성장기를 다룬 극이다. 배우에 대한 열정이 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시트콤처럼 특색 있게 보여준다. 하지만 이게 다라면 '리타'는 청소년 교육용 교보재 연극에 머물렀을 것이다.

질은 색조화장에 싸구려 웃, 결결한 입, 통속 삼류소설에 감동받아 작가 이름을 가명으

로 쓰는 리타(본명은 수잔이다)를 시종일관 무시하고 구박하는 프랭크 교수(황재현 분)는 실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문학적 콤플렉스로 토폴 문친 인물이다.

1대1 수업이 진행되면서 리타는 점점 지적이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성장한다. 그녀의 소원인 '탈프 로맨티' 잘 어울리는 지적이고 좋은 엄마'에 가까워져 간다. 반면 프랭크 교수는 추악하고, 자기비하적이고, 대인관계가 비틀린 본성이 하나씩 드러난다. 상황과 하향이 뚜렷한 두 사람의 그래프를 무대에서 엮는 재미가 쏠쏠하다. 유능한 작가 윌리 러셀은 두 사람의 그래프가 아래 위로 맞닿는 지점에서 제대로 한 방을 터뜨려 관객의 상상을 저버리지 않는다.

공효진의 연기는 TV 속 모습 그대로를 옮겨 놓은 듯하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다운 솜씨다. 특히 속사포 같은 대사를 퍼부으며 남자(프랭크)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연기는 일품이다.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아무래도 무대연기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자잘한 실수가 눈에 띈다. 머리카락에 손이 너무 자주 가 살짝 산만한 느낌이 들었다. 대사를 하다 무심코 손으로 입을 가려 대사가 푹 끓진 것처럼 들리기



'리타'는 무식하고 천박한 20대 미용사가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으로 성장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다. 리타(공효진 분·오른쪽)의 거친 말투를 참다못해 당장 나가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프랭크 교수(황재현 분).

도 했다.

무식한 '리타'에서 지적이고 세련된 '수잔'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잘 표현했지만 '일관된 말투'는 아쉬웠다. 어휘, 의상과 함께 말투도 서서히 변화가는 리타였다면 좀 더 설득력이 강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해 몇 가지 아쉬움을 뺀다면

'공블리'의 리타는 썩 괜찮았다. 공효진의 리타는 최화정의 '교과서 리타'와는 또 다른 그녀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대학로 DFC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 중. 2월1일이 마지막 공연이니 놓치고 싶지 않으면 서둘러야 한다.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강원랜드, 집행임원 5명 선임 인사

강원랜드는 21일 집행임원 5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집행임원은 전략기획본부장 성철경(현 강원랜드 재정운영실장), 카지노본부장 홍종철(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IT실장 백혜경(현 KT 상무), 시설관리실장 장홍균(전 서울춘천고속도로 대표이사), 감사실장 이도형(전 국정원 국장) 등이다. 27명이 지원한 리조트본부장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

임원선임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엄정하게 선발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소통능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합승의 대표는 그동안 공석이던 주요 집행임원의 선임도 마무리해 앞으로 취임 때 천명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재철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kid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 개관



현대자동차(주)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 (사진)를 개관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최대 중심지 노브이 아르바트 거리에 개관한 모터스튜디오는 고객이 직접 현대차와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소통 공간'으로 현대차가 해외에 최초로 개설하는 브랜드 전시관이다. 지상 2층, 연면적 880여㎡(약 271평) 규모를 갖췄으며, 건물외 대형 통유리로 시공돼 외부에서도 실내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현대차는 고객들에게 현대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 1층과 2층을 각각 독특한 테마를 가진 '자동차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는 고객들에게 현대차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불법 보조금 주말 대란의 주범? SKT, 방통위 단독조사에 당혹

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주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섰다.

19~20일 실태점검 결과 지난 주말 SK텔레콤이 높은 리베이트를 판매점에 제공했고, 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위반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

다. 앞서 이동통신 업계에선 16~18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을 중심으로 최고 5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이와 관련 SK텔레콤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규제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해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한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근 기자

■신간 |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때 됐다

'그냥 눈물이 나',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으로 여성심리와 감성을 탁월하게 묘사해 온 '감성 크리에이터' 이애경 작가의 신작 에세이. 작가는 일상에 지치고 삶이 버거워질 때면 주저없이 여행가방을 꾸렸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길 위에서 만나고, 보고, 겪으며 기록해 둔 소중한 순간과 단상을 모아 20~30대 여성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여행이 매년 인생의 해답을 찾아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가는 '떠남'이라는 행위 자체



가 '힐링'이 될 수 있다 고 말한다. 훌쩍 떠난 곳에서 만난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문현답이 되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철저히 혼자가 되어 마주한 광활한 자연이, 때로는 서울보다 복잡한 도심이 이유 모를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70여 편의 글과 사진으로 담고 있다. 작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지난 여행에 대한 그리움이 솟는다. 미루고 망설였던 여행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준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말해준다.

양형모 기자